

서호인의 '소설처럼'



우연과 필연 사이 -황현진 '호재'

현대 소설에서 피해야 할 요소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복권과 죽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복권은 틀림없이 운에 좌우되는 우연적 장치이고, 죽음은 틀림없이 운명적으로 맞닥뜨릴 필연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좋은 이야기란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개연성의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는 도강(渡江)과 같은 것이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조금이라도 허이면 강물에 휩쓸려 버리기 십상이다.

폭발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등장인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제 막 소설을 습작하기 시작한 학생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법이다. 등장인물의 동선과 행동이 막혀 있는 순간에 난데없이 복권에 당첨되어 이것저것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설정은 요즈음 일일 드라마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너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나 우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현진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호재'는 우연의 끝에서 필연의 끝까지 활시위를 끝까지 당긴 소설이다. 한 사람(주인공 호재의 고모부)의 비극적 운명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리고 사건의 알

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은 아버지에게 일어난 우연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된다. 호재는 그 이름만큼 복을 타고 나지는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책임을 받기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역시 호재를 놓아 버린다.

호재에게는 고모(두이)와 고모부밖에 없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단란한 한때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호재에게 오래 숨겨온 아버지 두이의 비밀은 시한폭탄처럼 폭발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욱이 그 폭탄의 화력이 눈앞에 보였을 때, 호재는 두이는 물론 두이에게서까지 완전히 결별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홀로 된 호재의 삶은 지금 청년의 삶을 पि핀성 있게 그려 내는 캐릭터가 된다. 케이בל방송 바둑 채널의 계약직 작가로 일하며 되도록 먼 미래를 그리지 않고 눈앞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 미래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싫은 소리나 허튼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직장에는 툴툴거리는 정규직 PD가

있고 능글맞게 다가오는 후배 남자 직원 이 있다.

중요한 촬영을 앞둔 어느 날, 하필 눈은 쏟아지고 일정은 자꾸 뒤로 밀리는데, 누구하나 호재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원망할 데라고는 자기 자신 밖에 없음을 자각하며, 방향을 잃은 원망을 주위 담는 중에 휴대전화가 울린다. 두이의 전화다. 네 고모부가 죽었다. 심지어 강도의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한다. 호재에게는 이토록 호재를 담은 소식은 커녕 필연적 고통조차도 우연하게 다가온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은 있겠지만, 그것이 사고사일 확률은 적기 때문이다. 안면이 없는 강도에게 칼에 찔려 죽는 일은 여러 우연들이 겹치고 또 겹쳐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호재와 호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호재가 자라 온 서울 서쪽 변두리의 후미진 지역과 호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서울 서쪽의 방송단지를 번갈아 비추며 이야기의 삶을 불어넣는다. 특히 호재의 어머니는 물론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에서부터 뿌리를 내려 버틴 이야기는 현재의 호재를

어쩌다 거기에 있는 개인으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로또 복권을 매주 사는 것으로 삶을 위무했던 고모부처럼 황현진의 이야기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실을 뽕뽕 그린다. 고모부의 로또 번호처럼, 황현진의 인물들도 부재하거나 무력하다. 하지만 그들은 삶을 지속해 나간다. 굴곡이 있더라도 괜한 희망으로 일주일을 버티며, 괜한 희망을 찾아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며.

소설의 말미에는 사라진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다. 그는 호재에게 선택지를 준다. 호재가 무엇을 선택하던 호재의 삶은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는 호재라서, 호재의 삶을 기어코 이어 나갈 것만 같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 어느새 호재를 응원하게 된다. 어쩌면 이 땅의 거의 모든 청춘이 호재를 닮았으므로, 그 응원만 마땅하고 적합한 것이다. 우연과 필연 사이의 활시위를 당긴다. 삶이라는 화살이나 야간다. 거기에 호재가 있기를... '호재'를 읽은 사람이 보낼 수 있는 연말의 응원이라고 해 두자. (시인)

의료칼럼

안경 쓴 안과 의사는 괴로워!



박진우 보리안과병원 원장

요즘 초등학교 교실을 들여다보면 한 번에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 서너 명밖에 안된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9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원거리를 잘 보기 위해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 전 인구의 대부분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 등이 학업량이 많고 야외 운동 시간이 적어서 고도 근시의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국민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안경잡이'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안경을 착용한 친구들 수 많지 않았다. 그리고 비교적 안경을 쓴 친구들이 책 보기를 좋아해서인지 의과대학 친구들 중에는 안경을 쓰

는 친구가 많았고 나도 그중에 한 명이었다.

의대를 마치고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의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선생님은 안경을 쓰세요?"라는 것이었다. 환자분들 생각에 안경을 쓰는 안과 의사가 왠지 못 미더웠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생각해 보면 수궁이 가는 면이 있다. 피부 안 좋은 피부과 의사가 자기 피부부를 치료한다든지, 똥똥하고 담배 피는 내과 의사가 환자에게 비단이나 금연을 이야기하면 왠지 믿음이 덜 가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환자와의 관계(rapport)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꼭 그레서는 아니지만 안과 전문의가 된 후 나는 2003년에 라식 수술을 받았다. 사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만 이런저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을 자주 했었지만 막상 내가 수술을 받으려니 책에서 보았던 부작용들이 머릿속을 똥똥 떠다녀 솔직히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되었다. 하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별 특별한 불편 없이 안경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왜 선생님은 안경을 쓰세요?"라는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라식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왜 안과 의사는 라식 수술을 안 하느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안과 의사 중에도 안경을 쓰는 분이 많고 왠지 일반인들의 편견으로 수술 후 안 좋은 무언가가 있는데 숨기고 있다고 오해하시기 때문에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라고 설명하지만 수궁을 못 할 때가 종종 있다. 내가 아는 안경 쓴 안과 의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 집사람이 안경 끈 내 모습을 좋아하고, 유재석 다음으로 안경이 어울린다고 둘러대면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질문에 강력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저는 수술 받았는데요." 이 한마디면 환자의 눈빛에서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수술적 치료로 꼭 안경을 벗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은 정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확실히 좋은 결과가 예측되고 모든 지표가 안전할 때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시 유병률이 높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빠른 적용이 가능하여 굴절 수술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 및 수술 대가를 확보하고 있다. 한 해 약 25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밀한 안과 검사 장비의 발전 및 스마일 수술 등이 일반화되면서 시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의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은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 경련 많은 의사와 잘 교육된 라식 팀이 세심하게 수술을 시행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수술받을 때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요즘에는 안과 의사와도 상당히 많이 라식이나 스마일 수술을 받았고, 안경이 필요 없는데도 멋으로 안경을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안경 쓴 안과 의사에 대한 시선도 많이 너그러워졌다. 하지만 굴절 수술을 생각하는 환자라면 안경 쓴 안과 의사보다는 "저도 수술받아 보았는데 안전하고 편하고 좋아요"라고 설명해주는 안과 의사에게 한 표 더 주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기고

따뜻한 광주 공동체의 주역, 자원봉사자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어느 시인은 나무는 생의 절정에 이를 때 가장 아름답게 물든다고 말했다. 지금 광주의 주요 도로에는 은행나무가 만물어낸 황금빛 노랑 물결로 삭막한 도심에 낮가를 정취와 충만감을 더해주고 있다.

노란 가로수길 만이 아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그 어떤 장소에 가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색이 노랑일 것이다.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바빠지는 달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목욕, 말뼛, 청소 등의 사회복지시설 봉사는 물론이고 아동결연, 사랑의 연탄 배달, 김장 김치 나누기, 사랑의 집 고쳐 주기 등의 봉사 활동

으로 지역 사회 곳곳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올해 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들은 폭염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기장 곳곳에서 질서 유지, 환경 정화, 안내 등의 봉사 활동을 펴고 멀리서 온 외국 선수단을 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응원했던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세계수영대회 등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봉사 활동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자원봉사자들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수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표하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 실천자'들에게 표창과 인 증서를 수여하는 '2019 광주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예로부터 사람과 정의를 위해 늘 앞장서 왔다. 1980년 5월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던 대동의 역사도 자원봉사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런 자원봉사의 DNA가 있기에 광주에

는 나눔과 배려가 넘치고 있다.

광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 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원봉사 시스템 분야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시대가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수요처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나눔과 연대의 '자원봉사 선도시 광주'를 선언하면서 민선 7기의 비전과 세부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핵심 전략중 하나인 AI 기반의 '광주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은 전국 최초로 개발되었다. 봉사자는 자신에게 꼭 맞는 봉사 일감을 선택할 수 있고 수요처는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한 수 있는 특 특한 중매쟁이와 같은 양방향 플랫폼이다. 지난 4월 초 정상 운영 이후 현재까지의 플랫폼을 통한 자동 매칭된 인원은 9700여 명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면서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법 등 매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최첨단 추가 기능을 탑재하

여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시스템으로 개선 계획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기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용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사회가 정보화, 기계화되어 편리해져도 결국은 주위의 사람 넘사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가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나아가 세계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행정의 역할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땅한 예우를 하는 것이다. 그 시작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각박한 세상의 버림목이 되어주고, 따뜻한 광주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社說

공공기관들 5·18 자료 공개 왜 머뭇거리나

국가기록원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보안사령부)로부터 이관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그 범위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5·18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관한 문건에는 군 진압 및 정국 대책 관련 목록, 청문회 등 국회 대비용 추정 자료, 주요 인물 및 단체 관련 자료, 경찰 관련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에 생산된 '광주 소요 사태 상황 일시 전문' '전교사 정보처 일지' '사망자 신상 보고, 지휘권 발동 지시' '5·17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록' 등 2321건이다.

이들 자료는 80년 5·18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는 발표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의 속

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모든 문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 699개 공공기관에 5·18 관련 자료 보유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60개 기관으로부터 자료 4개가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 확인된 자료는 문서와 간행물 등 3만 351건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375개 공공기관이 자료 보유 여부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5·18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사대적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취지를 되새겨 5·18 관련 자료 발굴과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 기부 약속 지켜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사회와 약속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 지역 사회는 기부체납 조건으로 임시 운영 허가를 받은 해상케이블카 업체가 2015년 첫 해만 기부금을 낸 후 3년 지 20억 원의 기부금을 연체하자 운영 중단도 불사하려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km 구간 조건부 임시 운영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류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때 여수시는 업체가 약속한 약정을 근거로 오동도 입구 시유지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 및 기부체납 후 운영 조건으로 임시 운영 허가를 내줬다. 덕분에 조건 미비로 전남도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업체는 2014년 첫 운행 이후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히트 상품

이 됐다. 하지만 업체는 약속과 달리 운영 첫 해인 2015년 기부금 8억3379만 원만 약속대로 납부했을 뿐이다. 2016년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은 후 정식 운행 허가를 얻은 이후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체는 2014년 체결한 여수시와의 기부협정이 갑갑에 의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여수의 해상케이블카는 시의 지원과 교통난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해 온 돌산 주민들의 협조로 이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업체는 약속한 수익금 일부를 조속히 지역 사회에 기부해야 마땅하다. 현재 업체는 공익 기부 대신 100억 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수시는 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기부금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한편 장학재단 설립의 효과도 면밀히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감독과 배우 이름만으로 택했던 터라 영화를 보며 내내 궁궐했다. 50년을 관통하는 영화에서 젊은 시절의 그들을 과연 누가 연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였다. 로버트 드니로, 알 파치노, 조 페시 주연, 그리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아이리시맨' (The Irishman) 이 이야기다. 1940~1943년생 백전노장들이 의기투합한 영화는 '좋은 친구들' '대부' '월스어번 어타임 인 아메리카' 등 그들의 대표작을 떠올리게 한다.

20세기 미국 정치 이면에 존재했던 악명 높은 인물들과 연루된 한

'젊은' 로버트 드니로

컴퓨터 기술이 만들어 낸 제임스 딘은 많은 이 미제 사건의 대명사 '지미 호퍼 실종 사건'을 그린 영화 '아이리시맨'에 대해 감독은 '신의, 사랑,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배신에 관한 영화'라고 규정했다. 영화는 청부살인업자였던 82세 노인 로버트 드니로의 회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시간상을 넘나드는 영화는 주인공들의 첫 만남으로 이야기가 점프하는데, 이때 등장한 '젊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청춘 배우 대신 '젊은' 로버트 드니로와 조 페시가 화면에 등장해서다. 이런 모습은

나이를 되돌리는 디에이징(de-aging) 특수 효과 덕에 가능했다 한다. 배우들 또한 젊은 얼굴에 맞는 젊은 몸놀림을 보여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오토바이 사고로 스물 넷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제임스 딘도 부활한다. '이유 없는 반항' '자이언트' '에덴의 동쪽' 등 단 세 편의 영화를 통해 '불멸의 아이론'이 된 그는 사후 64년 만에 영화 '파이닝 잭'에 모습을 드러낸다. 과거 영화 장면들과 컴퓨터그래픽을 혼합해 캐릭터를 만든 뒤,

다른 배우가 목소리연기를 맡았다고 한다.

컴퓨터 기술이 만들어 낸 제임스 딘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제임스 딘일 수 있을까. 첨단 과학기술이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꼭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닌 듯해 쓸쓸한 생각도 든다.

참, '아이리시맨'은 영화관 상영은 끝났지만 넷플릭스에서 언제든 볼 수 있다. 분명,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 209분이 라는 긴 러닝타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것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